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2.0 또는 지방분권 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조례 청구 연령(19세→18세)과 조례 청구 동의 인원의 완화는 주민참여권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필자는 지방자치 2.0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실질적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권과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권 수 하향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방자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이야기하면 다소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

전 매 광 장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민자치 2.0시대를 기대한다

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 해야 할 사명감 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주민 사명감·역할 다해야

필자는 작은 의미의 자치분권, 그리고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의 강화',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주장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0년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부터 전국에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중 6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

행 초기 주민의 참여부족과 자생조직간 소통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주민자치회에 다시 모인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와 계획의 심의,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묻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

로서 역할을 해낸다.

2021년 순천시의 경우 기존 8곳에서 2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해남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으로 전환했다. 시행 초기 갈등과 반목으로 인식되었던 주민자치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생활자치와 화합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고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위기를 넘어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획일적 기준으로 해결 곤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방적,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분권 2.0' 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2.0' 시대로 함께 오기를 기대한다.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발본색원하라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 아파트 시공사가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화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인데다 국회에서 이 같은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한 당일에 또 사고가 발생해 어안이 병병할 정도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서 실종된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붕괴 피해 우려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들은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사고 낙하 구조물로 인근 차량들이 파손 피해를 입었고 주변 상가와 아파트, 백화점 등이 정전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

트 타설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붕괴 원인은 물론 안전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현장에서 낙하물과 지반구조 침하 등의 민원을 행정당국과 건설사 측에 수백 차례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지역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다. 업체는 학동 참사 때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지역민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일이 재발하는가.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제도적·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당국은 당장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진적인 개발 방식을 보는 것 같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AI페퍼스에 김연경 선수 영입해야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광주의 배구팬들은 김 선수가 광주를 연고로 한 페퍼커피축협의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비길 열망하고 있다.

AI페퍼스는 16연패를 하며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광주시배구협회는 AI페퍼스의 선수층이 얇고 어린 선수들이 많아 리더라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이 팀은 지난해 11월 9일 창단 이후 첫 승을 거두고는 2-4라운드에서 모두 패했다. 16연패는 V리그 여자부 단일 시즌 역대 3위의 불명예 기록이다.

2020도쿄올림픽 여자배구에서 우리 대표팀이 불굴의 집중력을 보이며 4위를 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AI페퍼스 성적이 부진해서 여자 프로배구에 대한 흥행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연패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11월 평균 1,990명이던 광주 흥행 관중은 올해들어 첫 경기

열린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는 1,031명으로 떨어졌다.

김연경 선수가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배구 팬들은 그녀가 어느 팀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김 선수는 전성기가 지나간 했지만 여전히 세계 정상급 레프트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김 선수 부모님이 고향이 구례인 만큼 광주를 연고로 하는 AI페퍼스에 입단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역 배구계도 한국 배구의 간판이자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김 선수의 영입을 무조건 찬성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자 프로 배구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절실하다. 김 선수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의 양보가 우선 필요하다. 광주배구협회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민들이 뜻을 모으고 정성을 기울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프로배구의 발전과 더 큰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설 때다.

에세이



박덕은

문학박사·화가·전 전남대 교수

밤새 누가 그리움이라는 그림달을 손가락 끝에 얹혀 놓았을까. 인연이 다해 몸밖으로 떠날진 손톱, 몸에 새겨진 이별의 흔적은 스리고 저려, 시간이 흘러도 손톱처럼 자라 그날의 상흔을 다시 끄집어낸다.

첫사랑, 그녀와의 인연은 보름달처럼 환했다. 아득한 나의 먼먼 인생 항로까지 환하게 밝혀 줄 것 같았다.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은 보름달뿔 같아 한입 베어물면 달달했다. 하지만 서로에게 스며들지 못한 비릿한 말들이 얽히면서, 그녀는 그녀를, 나는 나를 각자 변명하기 바빴다. 아픔과 아픔이 맞물리면서 생각과 감정이 따로따로 자기 안에서 고집스럽게 숨배되었다. 깊게 파인 상처에 공감의 열

(六)이 흐르고 이해의 맥박이 뛰어야 비로소 한 시절이 완성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파격으로 뒤섞이지 못했다. 어느 순간 보름달은 반으로 접혀 반달이 되고, 반달은 다시 그림달로 이루어 갔다. 보름달과 반달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우리의 미소는 달빛으로 채 물들기도 전에 불안을 토해냈다.

하루는 그녀가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그날따라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왔다. 반짝이는 매니큐어가 예뻐서, 손톱 안의 반달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그 반달은 생의 반쪽과 같은 느낌이어서 그녀와의 미래를 꾸꾸기도 했다. 반달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는 미완의 운명과도 같아서 매력적이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길 때, 반달은 열 손가락 끝에서 환하게 꽃피어났다. 그 하얀 반달은 그녀와 나만의 내밀한 영토이기도 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던 달콤한 귤속말과 설익은 내일이라는 씨앗을 그곳에 심었다. 공중을 달락거리며 바람의 노래와 통통 튀는 설렘으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졌다.

여행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뒤, 호숫가를 산책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지금 최고로 행복해. 이렇게 행복

그믐달

할 때 헤어지고 싶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줘."

숨이 턱 막혀 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오랜 시간 그녀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졸임표로 나의 하소연을 건넬뻔했다. 건방진 이별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호수 위로 무사의 칼처럼 날카로운 달빛이 내리쬐었다. 호수가 달빛에 가슴을 베이며 하얀 피를 쏟아냈다. 만개한 통증이 수면을 수놓았다. 호숫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업어 줘."

마음이 썩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업고 한참 동안 호숫가를 거닐었다. 평소와 그녀는 내 등에 업히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나에게 업히면서, 나는 그녀를 업으면서 우리의 빈집 같은 하루 속으로 불이 오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은 나의 간절함이 그녀를 업은 두 손에 짱짱히 실렸지만, 그녀는 이내 내 등에서 내 삶에서 영원히 내려왔다.

그녀와 헤어진 후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다. 하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반달이 떠 있

었다. 그녀와 나만의 내밀한 영토였던 그때 그 반달이 밤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의 달콤한 귤속말은 여전히 반달처럼 환했다. 그리움으로 한 달이 가고 일 년이 가고 육 년 반이 흐른 어느 날, 그녀에게서 만나지는 연락이 왔다. 커피숍에서 30분쯤 기다렸을 때, 그녀가 맞은편 길에서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커피숍 문 앞으로 나가 그녀를 맞이했다. 내가 아기를 안자마자 아기는 방금방금 웃었다. 커피숍에 앉아 얘기를 나눴지만, 나와 그녀 사이에 보름달처럼 환한 아기의 웃음이 가로놓여 있었다. 아기는 달빛 흠뻑 같은 침을 흘렸고 나는 손수건으로 입가에 묻은 그 흘림체 낙서들을 닦아 주었다. 나는 이제 저 환한 보름달 같은 아기의 웃음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영영 다가갈 수 없게 됐다. 그날 이후로 그녀를 잊기로 했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지 6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마지막 그리움 같은 그믐달 모양의 손톱을 꺾는다. 뚝뚝 잘라나간 그리움들, 인연의 끝자락에 머물렀던 첫사랑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진다. 새 손톱이 자라듯 그 마음이 지나면 언젠가 새로운 인연의 초승달은 다시 뜰 것이다.

지방 위로 달이 기울고 있다.

교육감 선거 관심 가져야 할 때

기지사첩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된다. 3월 대선까지 겹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기존보다도 더 떨어졌다.

교육종사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됐던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직선제 도입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직선제 선출 이후 교육감이 바뀌거나 연임하며 12년간 광주·전남 교육을 이끌어왔지만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가 자신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교육계와 학부모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일쑤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 정책과 예산 반영 등을 놓고 지휘자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철학이 뚜렷한 소신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어떠한 환경의 조건에서 교육받는 나에 따라 미래인재들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높이고 둔 현재 교육계는 크고작은 지역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2023년



이나라
사회부 차장대우

교과 학제제 전면 도입 등 기존교육의 틀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

현재 광주시교육감 출마 후보군으로 10여 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또한 3명의 인사가 출마의지를 밝혔다.

사·도 교육감 후보자들의 약력 또한 전교조총신, 정치인, 대학총장 등 화려하다. 새해가 밝아오자 후보군들은 포럼과 출마선언 등 일정을 조율하며 인지도 높이기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감 임기 4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교육의 자각변동에 뒤처지지 않고 초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다음 세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 후보의 교육철학과 정책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지광장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 낭만을 즐기 위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겨울 캠핑에는 더욱 특별한 주의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얼마 전에도 캠핑장에서 잡들기 전 켜놓은 부탄

겨울 캠핑시즌, 낭만보다 안전부터 챙기자

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가스난로 사용으로 인한 산소부족이었다. 더욱이 비가 내리거나 텐트 외부에 눈이라도 쌓이게 된다면 공기 순

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난로나 화로대와 같은 화기 사용은 가스 중독은 물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텐트 안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고 산소를 연소시키는 방식이므로

니 일산화탄소나 불완전 연소 가스가 텐트 내부에 축적되면서 질식사 위험이 높다.

겨울철 야영 시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질식과 화재 예방을 위해 텐트 환기를 열어놓는 등 환기를 철저히 해 질식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야영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賢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 회 제 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사회부 010-5601-2219
사 회 2 부 (062) 720-1043	필 간 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 매 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